

문학텍스트와 문화적 해석

- 「스페인 문학사」를 통한 모델 연구*

나 송 주**
(한국외국어대학교)

1. 들어가는데

다른 외국어 문학사 수업들도 나름대로 많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스페인 문학사」과목도 학생들에게 수업을 진행 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한계와 난제를 가지고 있다. 학생들 대부분은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스페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학생들로 텍스트 해석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다. 학생들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드는 점은 「스페인 문학사」에서 다루는 텍스트들은 고어적 단어들과 표현들, 의도적으로 문법을 파괴해 버린 문장들, 현학적이고 과시적인 표현들로 가득 차 있는 문장들이다. 게다가 생소하고 이해되지 않은 당혹스러움으로 가득 찬 세계에 대한 수많은 작품들을 나열하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잘라 버린 작품의 일부만만을 소개하면서 문학 작품으로서의 재미를 잃어버리게 하는 점, 영상에 익숙한 세대들이 문학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점 등 문학사 수업을 재미없게 만드는 요인들은 수없이 많다. 이런 상념들에 빠져 있노라면 대학원에서 요즘 문학 보다는 지역학이나 통번역을 선호하는 주된 원인 중의 하나도 문학사 수업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하는 자책

* 본 논문은 2011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 학술 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

**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교수.

감까지 든다.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우위에 두는 가치관의 확산과 심화된 취업 경쟁은 대학 교육에서 학생들에게 실용주의적 가치를 지향하게 만들면서 대학교에서 외국어 교육은 영어로 획일화되고 있다. 물론 독일어과나 불어과에 비해서 스페인어에 대한 실용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지만 문학적 교양의 가치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이제 대학생들 사이에 문학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은 새삼 놀라운 일이 아니다. 대학교 커리큘럼에서 문학 강좌 수는 줄어들고, 문학 과목이 없어진 자리는 문화 강좌, 대중문화, 영상예술, 공연 예술, 사상사 번역 및 통역 과목 등이 대체해서 채우고 있다. 인문학적 위기라고 부를 수 있는 작금의 이러한 상황은 근자에 더욱 침체화되면 되었지 좀처럼 개선될 징조가 보이지 않고 있다. 문학과 삶에 대한 가치의 왜곡을 야기하는 우리 시대의 이런 문제점을 목도하면서 「스페인 문학사」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의 문제는 너무나 절박한 문제이지만 예비적인 논의조차 이뤄진 적이 없었다. 「스페인 문학사」 시간에 작가와 작품의 역사를 가르칠 것인가, 텍스트에 대한 연대기, 영향관계, 문체 중에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가르칠 것인가, 작품의 감상과 비평은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한정된 시간을 어떤 비율로 배정해야 하는가 등등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 교수들 사이에 예비적인 논의조차도 이뤄진 적이 없다. 사실 필자가 검색해 본 바에 의하면 다른 외국어 문학사 교육에 대한 연구 경우도 「스페인 문학사」 연구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느낌이다. 기존의 문학사 관련 논문들은 문학사 수업에 있어서의 개인적인 경험과 새로운 교육과정 소개, 영화, 문화를 이용한 교수법을 거론하는 정도일 뿐이다.¹⁾ 필자 역시 스페인어 문학사 수업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얼마나 고민을 했는가라고 자문해보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이에 어떻게 보면 진부한 문제들처럼 보이는 문학 수업, 특히 문학사 수업에 대한 대안적 제안을 본 글을 통해서 제기하고자 한다. 이 논의는 시작에 불과하지만 이를 계기로 「스페인 문학사」 수업 방식에 대한 논의와 발전적인 제언들이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1) 대표적인 논문으로 「프랑스문학사 교육의 변화에 대하여」, 김정숙, 「문학사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들 수 있다.

2. 새로운 상황과 요구들

우리는 디지털 시대라고 불리는 새로운 사회에서 살고 있다. 컴퓨터 발명 이후 디지털식 논리 전개를 하기 시작했고 반도체 발전은 그 속도와 사용의 범위를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가능케 해 주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첨단 디지털 기기들의 발달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온갖 종류의 정보들이 유통되면서 인쇄 매체의 전형적인 산물인 책은 점차 영상 매체와 전자 매체에 밀려날 것이라는 미래 학자들의 예언이 과장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당면 현안이 되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로의 전이라는 현실은 인쇄 매체를 고사시킬 정도이다. 전형적인 아날로그 시대에 속하는 교수들과 변화에 늦게 반응하는 대학들은 디지털 세대에 속하는 젊은 학생들의 욕구를 채워주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받고 있지만 이들 간의 간극은 심연만큼이나 깊고도 깊다. 시대적인 요구와 필요성에 대처하기 위해서 대학과 연구자들은 나름 새로운 교육제도와 교수법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교환학생 프로그램, 7+1 제도, 해외 문화원 인턴, 해외 공관 인턴, KOTRA 인턴 제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의 대학 생활에 대한 새로운 욕구를 채워주고 있다. 이런 새로운 제도들은 우리들이 학교 다닐 때와 비교하면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제도들이고, 그런 점에서 학생들은 엄청난 혜택을 누리면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수들은 문학 수업 시간에 문학 작품 중에서 영화화된 작품들을 보여주는 등 멀티미디어를 이용해 문학 수업을 진행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문학 수업 시간에 기계적 장치들을 이용한 수업이 얼마나 학습 의욕을 고취시킬까하는 점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 물론 처음에 학생들은 새로운 수업 장치들에 대해 흥미를 보이겠지만 수업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서 새로운 매체는 익숙한 일상이 되어 버리면서 그 효과는 대단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언어 교육에 있어 멀티미디어를 사용한 실용적 언어 교육은 우리 세대와 비교하면 언어 구사 수준을 올려 주었을 것이다. 다른 언어 전공과도 비슷하겠지만 우리 스페인어과의 스페인어 교육은 독해, 작문, 회화, 문법 분야를 각 초급, 중급, 고급 단계로 나눠 강좌를 개설해서 언어 교육을 하고, 3-4학년 과정은 「스페인·중남미 문

화], 「스페인·중남미 지역 연구」, 「통번역」 등에 대한 과목들을 통해 학생들의 실용적인 욕구를 채워주고 있다. 일군의 학생들은 통번역 대학원에 지원하거나, 지역 대학원에서 심화 과정을 지원하기도 하고, 소수의 학생들은 일반 대학원에 진학해서 스페인·중남미 문학과 언어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도 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필자에게 떨어버릴 수 없는 의문은 영상 세대 학생들이 3-4학년 문학사 수업에 얼마나 흥미를 갖고 있고, 수업에 얼마나 만족할까 하는 점이다. 문제는 영상 시대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외국어 교육과 인문학에서 지향하는 ‘인간다움’과 ‘다양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학부 과정의 문학사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이다. 즉각적인 이미지에 익숙한 학생들, 그 결과 언어 사용 능력이나 묘사력이 떨어지는 학생들, 쉽고 단순한 문장들에 익숙한 학생들과 문학사 수업 시간에 만나야 한다. 게다가 옛날과는 달리 해외에서 어학연수를 한 학생들이 상당수 있고, 이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학생들보다 스페인어 독해 능력이 뛰어나다. 해외 연수를 다녀온 학생들과 국내에서만 스페인어를 배웠던 학생들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수업에 임하면서 교수는 난처한 상황에 빠진다. 게다가 더 난처한 것은 문학사 수업 시간에 살펴보는 텍스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상상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암기식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이런 자질을 요구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일 뿐이다. 교수들이 바라본 학생들은 비판적 사고와 상상력은 고사하고 문학텍스트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학생들인 것이다. 그런 반응을 보이는 학생들의 태도 앞에 교수들은 원래 문학사 수업이 갖는 태생적 한계에서 기원한 지루함이라고 자위해 버린다. 새로운 매체를 이용한 문학사 수업이나 전통적인 강의식 문학사 수업 둘 다 큰 차이가 없다고 스스로 결론지어버리면서 옛날 방식의 강의식 수업으로 돌아가 버리고자 하는 체념과 유혹을 동시에 느끼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른다.

3. 문화적 맥락으로

모든 학문은 당대 사회의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듯이 문학사도 사회적 요구에 의해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문학사는 과학적 발전과 더불어 앞 시대의 문학 연구와 비평 패러다임을 비판하고 앞 시대의 고정된 규범이나 규칙을 부정하면서 사회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려고 노력해왔던 것이다. 그래서 문학사는 정신사(精神史)와 양식사(樣式史)를 통합하려고 했고, 이를 문학사 고유의 목적과 정체성으로 간주하였다. 즉 변화된 시대의 관심사와 취향을 적절하고도 능동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이는 교수의 개인적인 인상 비평과 객관적 타당성이라는 두 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이고, 현재를 낫설게 하면서 새로움을 도입하는 것이다. 자연과학에서 이룩한 업적을 차용해서 문학을 연구하려고 시도했던 생트- 뵈브나 텐느, 과학적 정신과 태도를 받아들이면서도 문학 주관적인 인상과 미학적 가치 판단을 조화시키려 시도했던 랑송, 1960년대 랑송주의를 극복하려는 시도로써 신비평과 구조주의는 앞 시대의 패러다임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연구 방법으로 등장하였다. 오래 전 기억을 되돌아보면, 필자가 학부과정에서 「스페인 문학사」 수업을 받을 때 문학사 수업은 텍스트 분석 위주의 작품론 수업이었다고 기억된다. 잘 알다시피 신비평은 텍스트는 그 자체로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그래서 텍스트 자체의 분석에 집중한다. 당연히 문학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텍스트 그 자체인 것이다. 신비평은 텍스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작품을 자세하게 읽고, 이미지, 메타포, 상징 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텍스트 분석을 문학사 교육의 방법론으로 삼았던 이유는 당시 유럽에서 신비평적 관점에서 문학 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에 의해 문학사 수업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생트- 뵈브나 텐느가 추구했던 실증주의나 과학주의, 랑송의 전기 중심주의와 문학적 평가의 주관성, 신비평의 새로운 미세한 분석은 오늘날 진부하다고 치부되지만 이들의 문학 접근 방식은 반세기 이상 사람들을 사로잡은 문학 비평과 교육을 위한 접근이었다. 특히 자연 과학과 구분되는 연구의 독자적 성격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시도했던 랑송은 당대인들에게는 문학 작품을 해

석하는 가장 적절하고 풍부한 설명이었다. 그는 그 의미가 다한 문학 작품들, 역사, 사회사, 풍속사사가 아니라 현재에까지 그 의미가 닿아 있는 걸작들에 대한 해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의 관점은 오늘날 문학사를 가르칠 때도 여전히 유효하다. 랑송의 말처럼 문학사는 문학 작품에 대한 역사도 고 문서를 연구하는 문헌학이 아니라 현대인의 눈으로 바라보는 걸작들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생트-뵈브, 텐느, 랑송, 신비평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문학사를 어떻게 규정하는가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생성하고 명멸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과거에 실증주의나 과학주의의 전통적 문학 교육이 당시에 새로운 대안이었던 것처럼 21세기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다. 의사소통을 위한 매체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문학 교육도 현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

대안으로 일군의 사람들은 이미지 시대라는 점을 고려해서 문학사 수업에 영화를 이용하는 방법론을 제안한다. 실제로 대학 교육 과정에 「문학과 영화」라는 강좌와 이와 유사한 과목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고 학생들에게서도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과목들은 교양 강좌 수업으로는 적절할 수 있으나 외국어 전공 문학사 과목에 적용하기에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문학과 영화는 너무나 다른 문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차이점은 차치하고 영화를 통해서 문학텍스트 독해와 문학적 언어를 설명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학사 수업은 문학적 자의식과 문학 고유의 매력을 느끼고, 작품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섬세한 내면과 심리를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치밀하게 형상화 하고 있는지를 공유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 텍스트들에 쓰여진 언어는 정밀한 언어미학을 보여주는 것으로, 특유의 지적이며 감성적 문제, 미학적 정서에 대해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자의 설명을 통하지 않고서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텍스트이다. 그런 의미에서 외국어 문학사 수업에 이미지 사용은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고 시대적 요구와 완전히 단절하고서 전통적인 강의 방식을 그대로 반복하자는 말은 아니다. 그래서 필자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문화적 맥락을

강조하는 수업을 대안으로 삼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수많은 이론가들이 각자 다르게 정의하지만 문화는 그 사회의 삶의 양상이고 의사소통 과정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이런 맥락에서 한복희의 문화에 대한 설명은 문학사 수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문화란 결국 인간의 삶이며, 그 삶이 영위되는 사회이며, 그 속에서 실존을 영위하는 인간들의 정신이며 기질이고 심성의 복합체일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이며 총체적 삶의 양상은 각 시기마다 각각의 민족 속에서 문학을 통해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²⁾ 결국 문학 텍스트를 학습하는 것은 문화를 학습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이해된다.³⁾ 문학 텍스트에는 문화가 그대로 녹아 있으며, 바로 그러기 때문에 문학 텍스트가 수행하는 기능 가운데 한 나라의 문화를 그대로 보존하고 전수하는 기능도 있다는 것이다.

문학은 문화의 한 양상이다. 문학 작품에는 문화가 담겨져 있으며, 스페인 문학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역동적인 구조로서의 문학 작품을 개인의 내면을 표현한 창작물이 아니라 집단의 반영물로, 사회적 반영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작가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초개인적 주체이며 사회적 존재가 되는 것이다. “문학 자체가 문화 행위이며, 문학을 가르치는 문학교육도 문화행위의 일종인 셈이다. 문학이 예술문화의 한 양상이라면 문학교육은 교육문화의 실천태이다. 그런 점에서 문학교육은 다중적인 의미의 문화행위, 문화적 실천이다.”⁴⁾ 그러므로 문학 작품은 장르 그 자체의 특성상 역사, 철학, 문명사, 사회학 법, 정치, 경제 제도, 음악, 미술 등 여러 분야들과 연결시켜 다루는 것은 당연하다. 헤겔, 루카치, 골드만은 문학의 본질적인 속성을 역사성과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언어적 구성물로 해석한 대표적인 사상가들이다. 이들과

2) 한복희, 「문학과 문학사 수업을 위한 교수법적 모델」, 『독어독문학』, 제41집, 155면.

3) 타일러는 ‘문화는 지식, 신앙, 예술, 도덕, 관습, 그리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간에 의해 얻어진 다른 모든 능력이나 관습들을 포함하는 복합적 총체이다.’라고 정의를 내렸다. 즉 문화란 한 마디로 한 사회의 구성원이 사회적으로 학습하고 공유하는 인간집단의 생활양식의 총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보통 예술 양식이나 미적 가치를 포함하여 쓰이는 문화의 개념을 좁은 뜻의 문화라고 하며, 한 사회의 성원들이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서 함께 지니게 되는 행동 양식과 사고방식, 곧 인간의 생활양식을 넓은 뜻의 문화라고 구분해서 사용한다.

4) 우한용, 『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3면.

같은 맥락에서 문학 텍스트의 근본적인 기능에 대해 한복희는 역사의식을 강조하는데, 그의 관점은 문학 텍스트에 대한 문화적 접근을 강조한 동어적 설명이다: “이러한 문학 작품들은 교양과 역사의식의 고취라는 새로운 의식을 배경으로 더욱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바, 이는 문학이 현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로 이용된다거나 혹은 문학이 지니는 교육적 가치만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⁵⁾ 원활한 의사소통이란 언어 지식 측면뿐만 아니라 그 언어에 담겨져 있는 문화적 배경, 풍습, 사고방식, 생활양식까지 이해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문학텍스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언어지식은 물론 역사와 철학, 법, 정치, 경제 제도, 음악, 미술의 예술 사조 등 삶의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부르크하르트가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에서 르네상스를 설명하면서 예술, 문학, 사상, 학문 등을 모두 다 문화라는 개념으로 포괄시키면서 그 기능을 중시했던 것처럼, 또 호이징가가 『중세의 가을』에서 중세를 설명하면서 인간의 공동체적 심리학, 정신과 삶, 예술과 영혼, 개인과 집단의 인식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사용한 개념도 문화적 해석이다. 그렇다고 부르크하르트나 호이징가가 르네상스나 중세를 설명할 때의 문화적 해석을 문학사 수업에 그대로 적용하지는 말은 아니다. 일주일에 2시간 수업 하는 문학사 시간에 문화적 맥락 설명이라는 목표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문화적 맥락을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에 대해 짧게 언급하는 파편적인 설명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런 방식은 무엇보다도 시간상의 제약을 뛰어 넘는 좋은 방안이고, 교수와 학생들 사이의 정서적 간격을 뛰어 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학생들은 여가 시간에 TV 시청이나 영화 보기에 빠져 있고, 음악을 들으면서 길을 걷고, 지하철에서는 끊임없이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면서 다니고 있는 세대이다. 이들은 책을 읽는 활자 문화 시대가 아니라 영상 문화 세대이고,⁶⁾ 이 세대에 속한 학생들이 2시간 동안

5) 한복희, 앞의 책, 156면.

6) 「영상 시대의 문학 교육」이라는 논문에서 숙명여대, 경원대, 인하대, 한양대 국문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작 소설을 읽은 학생들 비율과 원작 소설을

강의에 집중 하는 것 자체도 힘들어 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 문화적 맥락을 강조하는 방식은 그렇게 새로운 수업 방식이 아니다. 전통적인 문학사 교육에서 사용하던 장르, 유파의 생성, 발전, 소멸을 유기체적으로 파악하는 것보다 그 맥이 닿아있다. 문학사를 설명하면서 개별적 작품의 내적 구조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총체적 형상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구인환이 『문학교육론』에서 문학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적이고 통합적 설명이라는 설명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문학이 정태적인 것이 아니고 동적이라는 점과, 고립체가 아니라 양식사와 정신사의 통합이라는 점은 우리의 현재가 어떻게 긴밀하게 문학사적 맥락에 닿아 있는지를 인식하게 한다.”⁷⁾ 결국 문학사 수업은 문학 작품에 대한 정신사적 흐름과 양식사를 총체적으로 형상화 하는 것이다.

이제 시각 중심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문법이 우리들의 의사소통을 지배하고 있으며, 현대 사회는 논리의 시대가 아니라 감성의 시대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어렸을 때부터 영상 시대에 길들여져 있는 학생들은 문학 텍스트에서 발견하게 되는 어려운 부분, 의미의 이중성으로 인해 문맥의 모호성, 아이러니, 메타포 같은 것들을 무척 낯설어 하거나 건너뛰어 버린다. 수업 진행자에게 수업 교재는 한편이지만 그 인쇄된 책을 바라보는 시각은 반대라는 생각이 과장이 아닌 현실인 것이다. 그래서 삼화적이고 빠르게 화면이 바뀌는 TV처럼 이미지의 콜라주 방식의 설명을 더 선호하는 학생들 의식의 변화에 맞춰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문학사 시간에 영상의 시각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몽타주나 클로즈업은 말할 것도 없고 줌인이나 페이드인 따위의 영화 기법을 수업에 차용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방식의 담론 형식을 요구한다. 이미지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60-80년대의 전통적인 수업은 이미 그 효용성이 급속하게 사라져 버렸다. 사람들의 혼을 빼놓을 정도로 스크린의 화려한 이미지가 지배하는 시대

영화화 한 영화를 본 비율은 「결혼은 미친 것이다」는 18% 대 43%, 「반지의 제왕」은 36%대 79%, 「서편제」는 35% 대 85%, 「쥬라기 공원」은 21% 대 88%를 가진다. 이런 수치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학생들의 주된 관심사는 영화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7)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서울: 삼지사, 2004, 388면.

에 전통적인 문학 교육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21세기에 생트- 뵈브나 텐스를 따르자는 이야기고, 문학 교육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60년대 랑송식의 문학 연구를 고집하는 사람들이다. 학생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과 감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과거에 집착할수록 학생과의 간격은 더욱 벌어질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성적이고 논리적 사고가 지배하는 근대사회가 아니라 이미지 제국이라 불리는 포스트모던 사회이다. 그래서 피들러는 조이스와 엘리엇으로 대표되는 모더니즘 문학은 난해라고 고답적인 과거 시대였지만, 현대는 순수문학과 대중문학의 경계를 건너서 그 간극을 메우는 새시대의 문화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⁸⁾ 새시대에 기존 세대와 신세대는 기본적인 소통 방식에서부터 뚜렷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 진지함 대신에 가벼움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면서 작가의식이나 작가정신 같은 것은 관심 대상이 아니며 대중성과 상업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가 되었다. “그 결과 디지털은 개인의 생활과 대응방식, 그리고 의식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삶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의식 변화가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일정한 형태의 순환구조를 취한다는 사실이다.”⁹⁾ 어느 시대보다 빠른 사회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문학은 물신주의와 소외라는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고도의 정신주의와 조화하여 현대 사회의 위기를 구원할 수 있는 삶의 의미를 인간 정신적 차원에서 위안을 주고 구제를 해 줘야 한다.¹⁰⁾ 문학사 수업 시간에 핵심어 찾기, 빈칸 채우기, 오류 찾기, 요약하기, 주제 찾기 같은 옛날 시대의 정서로 새로운 교수법을 시도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는 새로운 시대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스페인 문학사」 수업의 예를 들어보기로 하겠다. 필자는 꼭 특정 시대를 대표하는 문학 작품의 부분을 발췌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수업을 진행한다. 외국어로 쓰여 있는 문학 텍스트 독해의 어려움은 난제이자 장점이기도 하다. 편안하게 수동적으로 보는 이미지는 쉽게 망각되어 버리듯이 쉬운

8) 김중신, 『문학교육의 이해』, 서울: 태학사, 1997, 123-24면.

9) 장창영, 『디지털 문화와 문학교육』, 서울: 글누림, 2009, 26-27면.

10) 구인환 외, 앞의 책, 서울: 삼지사, 442면.

문학 텍스트도 쉽게 잊혀지고, 어렵게 해석하고 어렵게 읽은 텍스트는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문화적 맥락은 역사적 배경이나 풍속에 대한 일반론적인 설명을 통해서 체득되는 것이 아니므로 문학텍스트 강독을 통해 느끼는 것이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이다. 신비주의 문학이나 피카레스크 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을 설명하고 읽는다고 신비주의 문학이나 피카레스크 소설의 느낌을 몸으로 느낄 수 없다. 아무리 성경을 여러 번 읽는다고 해서 스페인의 가톨릭적 문화 전통을 체감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말이다. 그럼 『엘 시드』의 한 부분을 예로 들어 수업에서 다뤄야 할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저기서 수많은 창이 오르내리고 수많은 방패가 부딪치고 쪼개지며,
 많은 갑옷이 부서지고 두포를 잃어버리며,
 흰 색깔의 많은 깃발들이 피로 붉게 물들고,
 아름다운 많은 말들이 주인을 잃는 모습을 보시는 듯할 겁니다.
 무어인들은 마호메트의 이름을 부르고
 기독교인들은 산티아고의 이름을 부릅니다.
 한 순간 들판에는 1,300명 이상의 무어인들이 죽어 넘어져 있었습니다.¹¹⁾

위 작품은 중세 작품이다. 셰익스피어에 대해 모르면 영국에 대해 모른다고 하듯이 『엘 시드』에 대해 모르면 스페인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다라는 말과 똑같다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중세 스페인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엘 시드』는 스페인의 역사이자 문학적이고, 스페인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민족정신이 녹아 있는 작품인 것이다. 찰튼 헤스톤과 소피아 로렌이 주연한 『엘 시드』(1961년)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영화를 보고 있노라면 그야말로 미국식 상업주의 영화의 절정판을 보고 있는 듯하다. 영화 『엘 시드』는 문학작품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즐거리로 영화화 되어 있다. 그러나 「스페인 문학사」를 듣는 학생들은 영화화된 『엘 시드』에 대해서는 간혹 봤다는 학생들이 있지만, 문학 작품 『엘 시드』를 원작으로 해서

11) 작가 미상, 『엘 시드』, 안영옥 옮김, 서울: 지만지, 2011, 78면.

영화가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먼저 이 사실을 설명하고, 왜 이 작품이 중세 사람들을 환호하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한다. 신적 대상들에 성스러움을 부여했고, 자신과 세계를 신성화하고, 종교적인 제도와 상징체계 안에서 살았던 중세인들에게 종교적 신심을 독실하게 해 주거나 착한 사람은 복 받는다는 교훈적인 이야기들이 주류문학으로서 민중들의 삶과 같이 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민중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 지지 않고 민중들을 열광시켰던 이야기는 종교적 교훈성 너머에 있는 내면의 충동과 소망을 충족시켜 주는 이야기, 삶이 허락해 주지 않는 인간들 내부에 자리한 야만성을 보여 주는 이야기들이 진짜로 민중들을 흥분시켰던 이야기들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지루한 삶, 배고픔에 허덕이는 삶을 살았던 중세 사람들에게 자기편이 승리한 영웅들의 전투담이 가장 행복한 이야기인 것이었다. 왜 당시 사람들은 이런 무훈시에 열광했는지, 중세 사회의 관심사는 무엇이었는지, 우리들과는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았는지를 호이징가가 『중세의 가을』에서 그리고 있는 ‘삶의 쓰라림’, ‘사회의 위계 개념’, ‘영웅주의와 사랑의 꿈’, ‘말과 이미지’, 후글라르, 승려문학의 중요 부분을 간략하게 콜라주 방식으로 나열하면서 설명한다. 또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아랍 문화도 병행해서 언급하면서 다른 세계를 보여준다. 『엘 시드』와 중세 기사 소설과의 차이점은 현실성, 환상성, 역사성인데 이에 대한 차이점들을 간단하게 나열해준다. 이런 방식의 펼침은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이는 영화는 감히 시도할 수 없는 문학 수업의 커다란 장점이라고 생각된다. 또 『엘 시드』는 어떻게 인간의 파괴적인 본성을 묘사하고 있고 이상화하고 있는지, 왜 「스페인 문학사」에 있어서 정전이 되었는지 까지 확장 시키고, 현대 스페인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나하는 문제까지 연장해서 설명한다. 또한 스페인인의 정체성과 전통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이 작품 속에서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기사도 문학과 궁정 문학을 설명하면서도 수업 내용을 『엘 시드』를 설명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전개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당대 사회에 대한 언어와 사유 과정, 역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스페인 사회에 대한 이해도, 더 나아가 자신과 다른 타자에 대한 이해력, 낯선 공간에 대한 이해력, 지나가 버린 시간에 대한 이해력, 미래에 대한 인문학적 상상력을 키워줄 것

이다. 물론 이런 과편적인 설명은 하나의 전공 학문으로서의 가치를 현저하게 떨어뜨릴 위험이 있지만,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시도되어야 한다. 수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놓친 학생들도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이 나오거나 또 다른 주제에 대해 언급하면 바로 전체적인 줄거리와 연결시킬 수도 있다. 어떤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수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세에 무지한 학생들에게 문학사 수업이 너무 전문적이고 어려움에서 오는 문학 과목 자체에 대한 거부감 내지 문학사 과목을 회피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차선책은 되지 않을까 한다. 교수도 문학사 수업의 궁극적인 목표를 학생들이 문학사에 흥미를 갖게 하는 과정 정도로 눈높이를 낮추자. 더욱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설명은 『황금 세기 문학』, 『스페인 연극론』, 『스페인 현대문학』 같은 시대별, 장르별 세부 과목강좌에서 얼마든지 보충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를 하나만 더 들어 보도록 하겠다. 테레사 수녀의 「내 님 나의 님」이라는 신비주의 시의 부분을 통해서 그 예를 보도록 하자.

나 온전히 날 바쳤으니
이렇게 모든 것 바꾸었네
님은 나의 것
나는 님의 것

달콤한 사냥꾼이
나를 쏘아 상처 주시니
나는 그분 품에 안겨
내 영혼 풀어두고
이렇게 모든 것 바꾸었네
새로운 삶 얻으면서
님은 나의 것 나는 님의 것¹²⁾

테레사 수녀가 살았던 16세기는 이미 근대주의 사회로 진입한 시기이다.

12) 박종욱, 『님은 나의 것, 나는 님의 것』, 서울: 명지출판사, 1999, 62면.

과학 지향적인 감각적인 문화가 지배하는 세계는 더 이상 신의 섭리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과학의 법칙에 의해 움직이는 시기였다. 갈릴레이의 지동설, 코페르니쿠스의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는 종교에 대한 당대인들의 태도를 변화시켰고, 과학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증대시켰다. 특히 베이컨과 데카르트는 과학과 신학을 분리시켰고 인간 운명의 개선을 과학의 의무로 생각했다. 데카르트는 인간과 움직이는 물체를 기계구조로 설명하여 기계론적 우주관의 발전에 기여했고 갈릴레오는 자연의 언어를 수학으로 파악하여 가설에 입각한 수학적 분석과 실험에 의한 확인 작업을 결합시켜서 움직이는 물체의 법칙을 설명하려 했었다. 위의 신비주의 시를 보고 있노라면 과학주의 시대에서 종교주의로 회귀하는 듯 한 느낌이 든다. 잘 알다시피 신비주의는 신비적인 직관과 개인의 내적 경험을 통하여 신을 느끼려는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인식 태도이다. 당연히 신비주의 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문학, 철학, 종교학, 사회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총체적인 시각으로 설명해 주어야 한다. 위 구절만 봤을 때는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시라는 착각이 들지만 시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은 종교 내적이고 영성적인 현상이다. 나의 사랑하는님은 하느님으로 그분은 내 영혼에서 머물고 있다. 하느님과의 만남은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이 간절한 소망이 불가능하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그녀에게 엄습한다고 노래한다. 그녀는 하느님을 그리워하면서 상처받은 영혼이 하느님과의 합일의 순간을 느끼기 위한 고통스런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 시에서 고통스럽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의 만남의 기쁨을 경험한 영혼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위 시를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신비주의 시는 유럽에서는 중세 때 유행한 장르로 이미 유행 지나가 버린 양식이지만 왜 스페인에서 16-17세기에 유행했던 이유에 대한 역사적 배경 설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러한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당시 새로 설립되거나 활성화된 프란시스스코회, 아구스티누스회, 도미니코회, 예수회, 갈멜회 같은 교단들의 특징들을 간단하게 열거하고, 이 교단들이 갖는 중세의 사변적 문화에 대한 반발적 특징을 설명한다. 테레사의 삶과 수도원은 불가분의 관계로, 평생 그녀는 수도원의 재건과 창립을 위해 노력한 점들, 그 결과 17개의 수도원을 설립했다

는 점, 고행주의가 갖고 있는 르네상스 문학적 특성, 정화의 단계, 광명의 단계, 합일의 단계까지 단편적으로 빠르게 설명하면 학생들이 신비주의를 이해하는 데 훨씬 수월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종교적인 정의 즉 “신비주의적 신앙은 하느님 안에 몰입하는, 그래서 그분과 영혼이 하나로 일치하는 신비를 신앙의 바탕이라고 믿으며 ‘신비’ 안에서 자신이 신앙을 성숙시키고 자신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신앙 자세라 성격 지을 수 있다”¹³⁾에 대한 설명과 문학적인 정의, 즉 “삶에서의 완덕과 신앙 안에서의 자기완성과 절대자와의 합일을 추구하는 사람이 자신의 인간적 조건이 유한자로서 갖게 되는 시간·공간의 한계에서 자기 극복과 정화를 거쳐 자신의 조건을 극복하고 ‘신의 은총에 의한 초월적 상승’에 의해서 무한자(無限者)인 神(신) 혹은 신성(神性)과의 내면적 합일(合一)을 경험하고 그 합일의 신비 체험을 시나 산문 등의 문학양식으로 표현하여 이루어진 문학적 결정(結晶)을 말한다.”¹⁴⁾를 비교해서 차이점과 공통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준다.

혹자는 이런 수준의 지식들은 문학사 수업이 너무 역사적·사회적인 측면에 치우친다고 지적한다. 이 지적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는지의 문제와 더불어 무엇을 다루어야 할지는 수업을 하면서 항상 누구나 경험하는 고민이다. 최영진은 이런 고민을 「문학과 문학사 수업을 위한 교수법적 모델」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가령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문화현상을 진단하고 읽어내는 작업은 정신분석학적 관점이나 철학적 관점 등에서 접근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성격을 띠게 될 것이며, 또한 회화, 사진, 영화, 광고와 같은 특정한 문화 형식에 집중하는 정도에 따라서 한 시대의 문화적 지형을 읽어내는 방식이 달라 질수 있기 때문이다.”¹⁵⁾ 결국 문학사 수업에 대한 정답은 존재하지 않으며 교수의 관심사와 수업 방식에 따라서 여러 방식을 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필자가 제안하는 문학사 수업은 문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

13) 위의 책, 14면.

14) 위의 책, 16면.

15) 최영진, 「문학과 문학사 수업을 위한 교수법적 모델」, 『영미문학교육』, Vol. 11 N. 2(2007), 한국영미문학교육학회, 108면.

어 내는 데는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학생일 때 「스페인 문학사」 수업에 등록한 학생이 5-10명 사이였지만 현재 필자가 진행하는 「스페인 문학사」에 50여명이 등록한다는 점에서 볼 때 최소한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는 흥미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나하는 생각이다. 물론 청강 학생들의 증가가 문학사 수업의 성공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최소한 학생들의 문학사에 대한 흥미를 유발했다는 점은 확실하다.

4. 마치면서

연구목적에서 이미 말했듯이, 이 글은 제안과 시론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그 결과 나름의 의의를 갖고 있지만 한계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즉 「스페인 문학사」 수업을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의가 필요하다는 점이지만 그 결론은 모두가 동의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영상 시대 또는 인문학의 위기라고 불리는 시대에서 이제 「스페인 문학사」 교육은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본 글은 시작되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영상시대의 학생들이 익숙해하는 영상적 방식에서 차용한 문화적 맥락을 제안했던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문학 연구 범위를 넘어서서 다양한 분야를 소개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비롯되었지만 또한 변화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시대적 결과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새로운 수업 방식 도입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고 스페인 문학의 지평을 넓혀나가는 것이다. 물론 문학사 수업을 통해서 외국어 구사 능력과 의사소통 같이 사회에서 요구되는 언어적 능력의 향상도 중요하다. 그러나 「스페인 문학사」의 진정한 의미는 인문학적 성찰이다. 언어 능력의 향상이 대학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아니기 때문이다. 대학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학생들이 사회에서 진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해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키우는 데 있다.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문학사 수업 시간에 문학 텍스트에 대한 문화적 접근은 스페인어 학습뿐만 아니라 동시에 실용 중심적인 교육, 기능적인 인간의 한계를 타파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인 기대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문학사 과목은 절충주의적 입장이라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독서에 대한 훈련을 받지 않고, 문학 고유의 의미나 문학적 감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학생들과의 접점을 찾는 노력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외국어 능력 습득이라는 학생들의 현실적 목표와 문학을 전공한 교수가 의도하는 문학 비평, 시학, 비유나 역사적 배경 같은 목표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위에서 제시한 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 수업은 첫째 영상 시대를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감수성을 채워주는 새로운 문학사 수업 방식일 것이고, 둘째 어휘의 중첩적 의미와 수사적 표현의 원의미를 찾는 정밀 독서가 아니라 영상 시대에 맞는 입체적이고 감각적인 접근이다. 셋째 너무 방대한 내용을 소화해야 하는 부담감을 덜 수 있는 방식이고, 넷째 학생들에게 철학적, 사회문화적, 정치적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켜 줄 것이다. 이런 경험은 그 자체가 흥미로운 영역이어서 학생들에게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더 나아가 대학원에서 인문학을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자극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서울: 삼지사, 2004.
 김인환, 『문학교육론』,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6.
 김중신, 『문학교육의 이해』, 서울: 태학사, 1997.
 문학과문학교육연구소, 편, 『문학교육의 인식과 실천』, 서울: 국학자료원, 2000.
 우한용, 『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작가 미상, 『엘 시드』, 안영옥 옮김, 서울: 지만지, 2011.
 장창영, 『디지털 문화와 문학교육』, 서울: 글누림, 2009.

- 정재찬, 『문학교육의 현상과 인식』, 서울: 도서출판 역락, 2004.
- _____, 『사회학을 위하여』, 서울: 도서출판 역락, 2003.
- 제임스 그리블, 『문학교육론』, 나병철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1987.
- 최지현, 『문학교육과정론』, 서울: 도서출판 역락, 2006.
- 김정숙, 「문학사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프랑스어문교육』, Vol.14(2002), 한국프랑스어문교육 학회.
- 김진하, 「프랑스문학사 교육의 변화에 대하여」, 『프랑스어문교육』, Vol.33 (2010), 한국 프랑스어문교육학회.
- 최영진, 「문학과 문학사 수업을 위한 교수법적 모델」, 『영미문학교육』, Vol. 11 N. 2(2007), 한국영미문학교육학회.
- 한복희, 「문학과 문학사 수업을 위한 교수법적 모델」, 『독어독문학』, 제41집 (2008), 한국독일어문 학회.

❖ ABSTRACT

Literary Text and the Cultural Interpretation
 - A Study of the Model of 「History of Spanish Literature」

Na, Songjoo

Instructing 「History of Spanish Literature」 class faces various types of limits and obstacles, just as other foreign language literature history classes do. Majority of students enter the university without having any previous spanish learning experience, which means, for them, even the interpretation of the text itself can be difficult. Moreover, the fact that 「History of Spanish Literature」 is traced all the way back to the Middle Age, students encounter even more difficulties and find factors that make them feel the class is not interesting. To list several, such factors include the embarrassment felt by the students, antiquated expressions, literature texts filled with deliberately broken grammars, explanations written in pretentious vocabularies, disorderly introduction of many different literary works that ignores the big picture, in which in return, reduces academic interest in students, and finally general lack of interest in literate itself due to the fact that the following generation is used to visual media. Although recognizing such problem that causes the distortion of the value of our lives and literature is a very imminent problem, there has not even been a primary discussion on such matter. Thus, the problem of what to teach in 「History of Spanish Literature」 class remains unsolved so far. Such problem includes wether to teach the history of authors and literature works, or the chronology of the text, the correlations, and what style of writing to teach first among many, and how to teach to read with criticism, and how to effectively utilize the limited class time to teach. However, unfortunately, there has not been any sorts of discussion among the insructors. I, as well, am not so proud of myself either when I question

myself of how little and insufficiently did I contemplate about such problems.

Living in the era so called the visual media era or the crisis of humanity studies, now there is a strong need to bring some change in the education of literature history. To suggest a solution to make such necessary change, I recommended to incorporate the visual media, the culture or custom that students are accustomed to, to the class. This solution is not only an attempt to introduce various fields to students, superseding the mere literature reserch area, but also the result that reflects the voice of students who come from a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 and generation. Thus, what not to forget is that the bottom line of adopting a new teaching method is to increase the class participation of students and broaden the horizon of the Spanish literature. However, the ultimate goal of 「History of Spanish Literature」class is the contemplation about humanity, not the progress in linguistic ability. Similarly, the ultimate goal of university education is to train students to become a successful member of the society. To achieve such goal, cultural approach to the literature text helps not only Spanish learning but also pragmatic education. Moreover, it helps to go beyond of what a mere functional person does. However, despite such optimistic expectations, foreign literature class has to face limits of eclecticism. As for the solution, as mentioned above, the method of teaching that mainly incorporates cultural text is a approach that fulfills the students with sensibility who live in the visual era. Second, it is a three-dimensional and sensible approach for the visual era, not an annotation that searches for any ambiguous vocabularies or metaphors. Third, it is the method that reduces the burdensome amount of reading. Fourth, it triggers interest in students including philosophical, sociocultural, and political ones. Such experience is expected to stimulate the intellectual curiosity in students and moreover motivates them to continues their study in graduate school, because it itself can be an interesting area of study.

Key Words

스페인 문학사, 문학텍스트, 문학교육, 문화적 맥락

논문접수일: 2012. 02. 10.

심사완료일: 2012. 03. 09.

게재확정일: 2012. 03. 16.